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2차 인터뷰 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1월 3일(화)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김예림, 이지현, 전강희, 전진모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2차 인터뷰심의회는 1차 심의 선정건 가운데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 심의 대상이 되는데 대한 적합성 가/부를 결정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2차 인터뷰심의회는 축제분야의 조정사안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계이다. 심사보다 협의의 비중이 크게 다뤄졌으며, 심의대상인 32건의 축제(무용 19건, 연극 6건, 기타 3건) 중 29건을 선정하였다.

각 인터뷰는 단체측에서 2023-2024년 진행할 축제의 핵심내용과 성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질의응답을 갖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 내용은 최종단계인 3차 심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으로 3차 심의 대상 축제를 선정하였다.

올 해부터 2개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만큼 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 수립여부와 내용의 우수성, 공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심의했으며, 미래극장으로써 본 극장이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해 어떤 동시대적 관점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계획의 경우 기술적 부분 외에 성폭력 예방이나 위계에 의한 문제 대처 등 참여자 보호차원의 안전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방법을 제안하였다.

2개년 신청 축제의 경우 2년차 계획 유무에 차이를 보였으나, 공모로 진행되는 축제 등 형식상 구체적 내용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1년차 프로그램을 토대로 2개년 선정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올 해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보수로 인해 6월까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높은 경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축제의 기간, 공연장, 일수 등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했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의 경우 예년의 평균 대관 시기, 일수, 극장 등을 참고하여 조율하고자 했으며, 관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의 우수한 축제 개최는 물론이고, 다양성과 실험성의 관점에서 신규 축제 선정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였다.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의 단계이나, 최종선정 단계에 있을 단독공연과의 적절한 분배를 고려했으며 경합이 치열한 기간과 극장에 대해서도 일정 이동이나 일부 축소의 가능성을 협의하여 3차 심의 대상 축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축제가 모여 있는 봄

/가을의 경우 여러 극장을 동시에, 장기간 신청한 축제들은 조율 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했다.

심의결과 많은 축제들이 운영계획과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축제의 경우 사회적 역할 항목 중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재하지 않아 새로 개편된 신청서에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심의 대상 축제 중 다수가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로 극장과 함께 고유성을 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들이 연례행사로 개최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 극장의 변화, 공연현장의 변화를 감지하며 시대성을 수용하여 관객과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며, 많은 개인 예술가(단체)의 활동과 확산에 좋은 플랫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